

“5·18행방불명자 유골 없었다”

광주 북구 옛 광주교도소 부지 추가 발굴 종료



지난 1월31일 오전 광주 북구 문흥동 옛 광주교도소 교도대 일원에서 토층작업을 하는 모습.

1980년 5·18민주화운동 과정에서 발생한 행방불명자를 찾기 위해 광주 북구 문흥동 옛 광주교도소 인근 부지 추가 발굴이 진행됐지만 결국 유골은 발견되지 않았

추정할만한 외부 토양이나 유골 추정 물질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5·18기념재단 등은 지난달 28일부터 4일간 발굴 조사를 진행했으나 유골 흔적 등을 발견하지 못하고 이날 작업을 종료했다. 재단은 2월1일 굴착 작업을 벌인 토양을 다시 덮는 작업을 진행했다.

이번 작업은 지난해 12월19일 옛 광주교도소에서 신원 미상의 유골 수십여구가 발견되고 추가 발굴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시작됐다.

옛 광주교도소에서 발견된 신원 미상의 유골은 현재 국과수 감정이 진행되고 있다.

옛 광주교도소는 1989년부터 최근까지 5·18 행방불명자 암매장 제보 10여건이 접수된 곳이다. 계엄군이 직접 주둔해 시민들을 사살했고 5·18 이후 암매장했다는 증언이 나오기도 했다.

당시 5·18직후 교도소 내 관사 뒤에서 8구, 교도소 앞 야산에서 3

구의 시신이 발견되면서 암매장 증언의 신빙성을 더했다.

80년 5월21일부터 이틀간 3공수 여단이 주둔한 옛 광주교도소에서 당시 3공수여단 출신 장교들이 이 일대를 지나는 시민을 향해 무작위 총격을 가했다. 이들은 '시민을 교도소 남서쪽 등지에 암매장·가매장' 했다는 증언을 하기도 했다.

또 같은해 6월 초부터 20일까지 재판성립된 투입군이 하사관 중심으로 광주에 와 사체 처리를 하고 간 사실도 기록으로 남아있다.

군 기록에 따르면 약 28구의 시신이 교도소 중심으로 암매장 됐다는 보고가 있지만 11구만 발견됐고 17구는 현재까지 발견되지 않고 있다.

5·18기념재단과 대한문화재단 구원은 2017년 11월부터 2018년 1월까지 '5·18암매장지'로 거론된 옛 광주교도소에서 4차례 발굴조사를 벌였지만 유해를 찾지 못했다.

신봉우 기자

“고교 중퇴인데 졸업?”

함평군수 보궐선거 예비후보 고발

전남선관위, 선거법 위반 적용...중퇴한 고교 수학기간 누락

함평군수 보궐선거에 출마한 한 예비후보가 중퇴한 고등학교를 마치 졸업한 것처럼 명함 등에 새겨 배포했다가 검찰에 고발됐다.

전남 선거관리위원회는 4·15 총선과 함께 치러지는 함평군수 보궐선거에서 예비후보 A씨를 공직선거법 64조(선거법) 위반 혐의로 광주지검 목포지청에 고발했다고 2일 밝혔다.

A씨후보는 정규학력이 아닌 중퇴한 B고등학교와 명예졸업한 C고등학교를 동시에 게재하고 중퇴한 학교의 수학기간을 명확히 기재하지 않는 등 선거법을 위반했다.

공직선거법 64조에 따르면 정규학력을 게재할 때 중퇴한 학력의 경우 수학기간을 함께 기재해야 한다.

A후보는 B고를 중퇴한 후 검정고시를 거쳐 대학교와 대학원을 진학, 졸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후보는 비정규학력을 게재한 의정보고서 2만9500부, 명함 4000

장을 선거구민에게 배포했다.

선관위는 A씨후보가 배포한 의정보고서 양은 선거구 전체 가구 수인 1만7842의 165%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법상 최종학력만 기재해도 되지만 A씨후보가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고등학교 학력까지 기재했고 중퇴한 학교의 수학기간을 누락해 마치 해당 고등학교를 졸업한 것처럼 선거활동을 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명예졸업을 일반인들이 경력으로 사용하는 것은 상관이 없지만 유권자에게 표를 얻기 위해 학력을 기재하는 후보들은 유권자에게 선거법상 저촉을 받기 때문에 신중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함평군은 지난해 5월30일 이윤행 전 함평군수가 선거법 위반으로 직위를 상실, 군수 자리가 공석이 된 후 부군수의 군수권한 대행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지난 1월31일 오전 광주 서구 마북동 한 아파트 인근에서 하수관로 공사 중 토사가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해 소방당국이 사고 현장을 수습하고 있다.

광주 공사현장 토사 무너져

노동자 4명 매몰...현장소장 입건

광주광역시 한 공사현장에서 토사가 무너져 노동자 4명이 매몰된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현장소장을 입건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2일 현장소장 A씨(46)를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31일 오전 10시쯤 광주 서구 마북동 한 아파트 인근에서 진행한 우

수관로 공사현장에서 안전조치와 현장관리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토사가 무너지는 것을 막기 위해 계단식으로 땅을 파야 하지만 포크레인으로 땅이 통째로 파져있던 점 등 현장에서 기본적인 원칙을 지켜지지 않은 정황을 확인했다.

뉴스1

◆단신◆

여수 금오도 여행객 2명, 복어 먹고 안면 마비

여수 한 섬마을에서 복어 독 증독 의심 증세를 보인 남성 2명이 응급치료를 받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1일 여수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오전 6시 11분쯤 여수시 남면 금오도에서 전남 저녁 식사로 복어를 섭취하고 안면 마비와 구강 건조, 어지럼증을 호소한 응급환자 2명이 있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이에 해경은 신속히 돌산해경파출소 구조정을 급파해 A씨(74·부산)와 B씨(68·부산)를 군내항에 대기 중인 119구급대에 인계해 여수의 전문병원으로 이송했다.

A씨 등은 지인들과 관광객 금오도에 입도해 저녁 식사로 복어를 섭취한 후 이날 새벽 부산으로 돌아가기 위해 일어나 보니 안면 마비 등 복어 독 증독 의심 증세를 보였다. 두 사람 모두 생명엔 지장 없이 병원 입원 치료 중이다

바다에 기름 유출하고 달아나던 선박 달미

바다에 기름을 유출하고 아무런 방제조치도 않은 채 출항한 선박이 해경의 추적 끝에 잡혔다.

목포해양경찰서는 전남 목포 인근 해상에서 선박 수리 중 기름을 유출하고 아무 조치를 하지 않은 채 이동한 예인선 A호(87톤, 원도선적)를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오전 이른 시간 목포 신항만 해상에 검은 기름이 떠 있다는 신고를 접수받았다.

해경은 즉시 방제정 등 선박 2척을 동원해 바다에 떠 있는 기름에 대한 긴급 방제작업을 실시했다.

이어 오염행위자를 신속하게 적발하기 위해 조사팀을 긴급 구성, 해상 기름부유 발견 시간대에 신항만 및 목포구 주변 해상의 임출항 선박 10여척을 조사했다. 이같은 조치에 따라 A호를 빠르게 검거할 수 있었다.

“항암치료 대출” 속여 8300만원 가로챈 40대女

대장암에 걸렸다고 속이고 70여 차례에 걸쳐 연인으로부터 8300여 만원을 받아 가로챈 40대 여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4단독(판사 이경호)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여·40)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6년 12월께 대장암에 걸렸다. 항암치료를 해야 하니 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 달라. 결혼하면 같이 갚아나가자'고 속여 연인 관계에 있던 B씨로부터 15만원을 송금받았다.

이어 같은 방법으로 1년 8개월간 73차례에 걸쳐 8300여만 원을 송금 받아 생활비나 채무변제 등의 용도로 사용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우울증, 자궁암 등으로 수십 차례에 걸쳐 치료를 받아온 점, 피고인이 처벌을 원치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중국서 사스보다 치명적인 조류독감 발생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창궐하고 있는 후베이성 인근 지역에서 코로나바이러스보다 더욱 치명적인 조류독감(H5N1)이 발견됐다고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2일 보도했다.

SCMP는 후베이성 인근지역인 후난성에서 치명적인 조류독감이 발견됐다고 전했다. 후난성은 후베이성 바로 밑에 있다.

조류독감은 사스(SARS,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보다 더욱 치명적이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인간에게 전염된 징후는 없다고 SCMP는 전했다.

NDP 인쇄전문기업

(주)남도프린테크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로 803번안길 93-10
 TEL : 062)943-0135 ~ 6
 FAX : 062)943-0134